

2026/01/27

권우정 책임연구원
20240006@iprovest.com

화장품

화장품 업종 업데이트: 외국인 수급 유입 확대와 올리브영-세포라 파트너십

최근 외국인 수급 유입과 지분율 확대 확인되며 화장품 업종 리레이팅에 긍정적
올리브영-세포라 협업, ULTA K뷰티 강화 등 K뷰티 미국 메인스트림 채널 확장 모멘텀 지속

외국인이 들어온다

최근 화장품 업종 내 외국인 수급 증가 긍정적. 특히, 지난주 1/22(목) 화장품 업종 내 외국인 일일 순매수는 1,513억원을 기록하며 일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함. 당일 화장품 업종 지수는 해당일 +6.5% 급등하며 코스피 대비 +5.6%p 아웃퍼폼 시현. 주요 종목별로는 에이피알(+11.5%), 펌텍코리아(+10.4%), 코스메카코리아(+10.0%), 아모레퍼시픽(+6.4%) 등이 강세를 보이며 업종 상승을 견인.

25년초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기업들이 다수 확인됨. 에이피알 (14.0% → 29.2%), 달바글로벌(0.5%(25년 5월) → 17.8%), 펌텍코리아(9.4% → 18.0%), 코스메카코리아(8.9% → 18.0%), 실리콘투(6.7% → 9.7%) 등이 대표적임. 과거 대비 높아진 외국인 지분율은 K뷰티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의미하며, 이는 주가 할인을 해소 및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함. 최근 미국 내 대형 리테일러들의 K뷰티에 주목 중. ULTA의 K뷰티 월드 론칭, 세포라-올리브영 파트너십 체결, 월마트 고위급 구매단 K뷰티 브랜드 업체 미팅 등 미국 메인스트림 채널에서 K뷰티 관련 뉴스 플로우도 빠르게 확대 중임.

올리브영-세포라 파트너십 발표

1/22 올리브영-세포라 파트너십 체결 발표가 있었으며, 월마트 고위급 구매단이 방한해 K뷰티 기업 57개사를 미팅하는 등 미국 현지 메인스트림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재차 상승하고 있음. 세포라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2,700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, 올리브영은 2026년 하반기부터 세포라의 북미(미국/캐나다) 650개 점포와 싱가포르/태국/말레이시아/홍콩 전 매장 48개 점포에 K뷰티존을 선보일 예정임. 향후 중동/영국/호주 등으로 확대할 예정임. 세포라 매장 내에서 다른 유통 채널의 별도 공간이 조성된 것은 처음으로,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됨. 올리브영은 현재 약 18개 브랜드의 80개 이상 SKU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, K뷰티존은 평균 두 구획을 차지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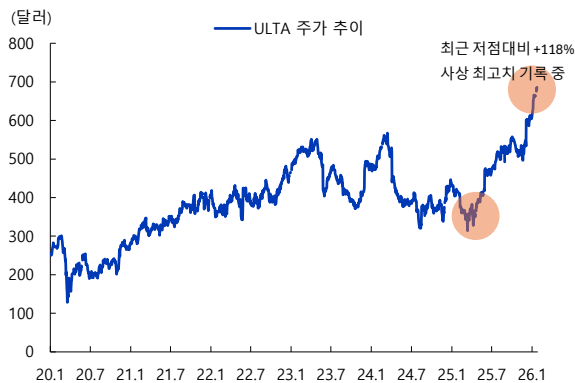
이번 세포라의 결정은 최근 스킨케어 부문에서 경쟁사 대비 부진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됨. Yipit에 따르면, 11월~12월 세포라의 스킨케어 매출은 YoY -5%, -13% 감소했으며, Mass 스킨케어는 YoY -17%, -20%로 부진 폭이 확대되었음. 반면, ULTA 스킨케어 카테고리 매출은 YoY +10%, +6%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시현. ULTA는 25년 7월 'K뷰티 월드'를 론칭한 바 있으며, CEO 또한 12월 어닝콜에서 실적 호조 배경으로 K뷰티의 긍정적인 성과와 K뷰티에 대한 전폭적인 마케팅 지원을 언급한 바 있음. ULTA는 호실적 발표 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K뷰티 전략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임. 동 파트너십은 미국 메인스트림 채널 내 K뷰티 침투가 본격화되는 신호로, 업종 전반의 성장 기대 및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
[도표 1] 2000 년 이후 역대 화장품 업종 외국인 순매수대금(일간) 상위 20

순위	일자	일간 외국인 순매수 대금(십억원)
1	2026-01-22	151
2	2021-06-16	138
3	2020-11-20	110
4	2025-05-08	105
5	2021-01-25	102
6	2024-09-25	94
7	2025-12-16	87
8	2016-07-29	85
9	2025-05-09	82
10	2015-05-18	82
11	2016-08-05	82
12	2021-04-23	81
13	2022-04-28	80
14	2020-08-11	79
15	2020-01-07	77
16	2025-11-07	76
17	2025-11-20	75
18	2022-06-29	75
19	2020-04-23	75
20	2026-01-20	7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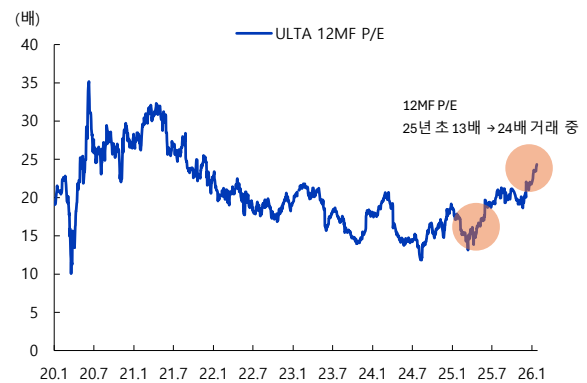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2] ULTA 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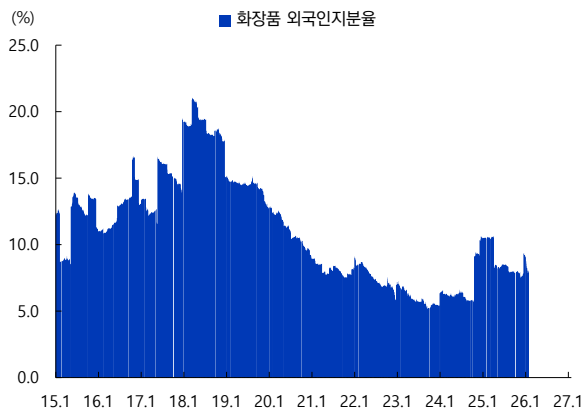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3] ULTA 12개월 Fwd P/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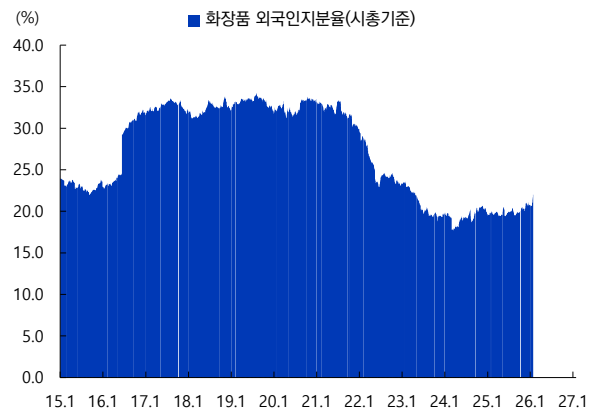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4] 화장품 업종 외국인 지분율(주식수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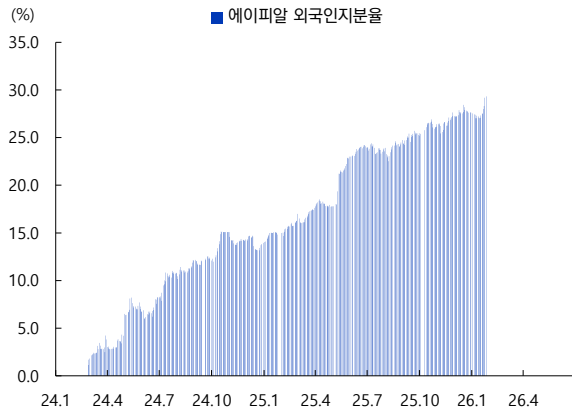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5] 화장품 업종 외국인 지분율(시총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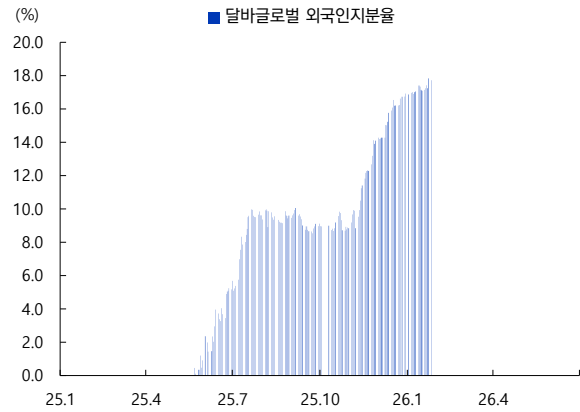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6] 에이피알 외국인 지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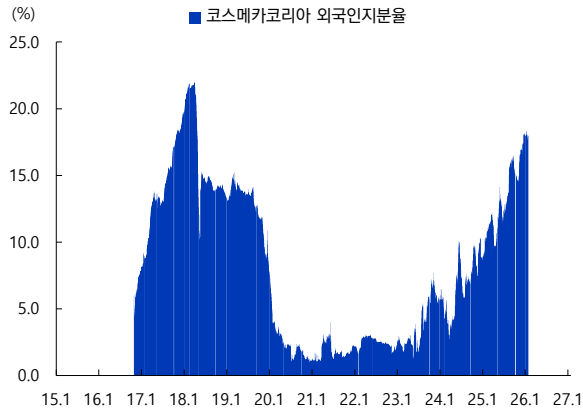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7] 달바글로벌 외국인 지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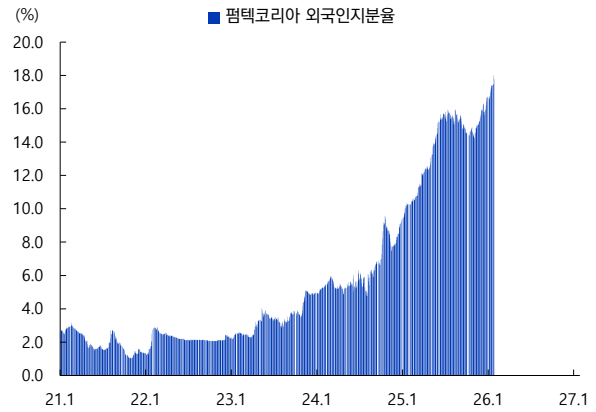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8] 코스메카코리아 외국인 지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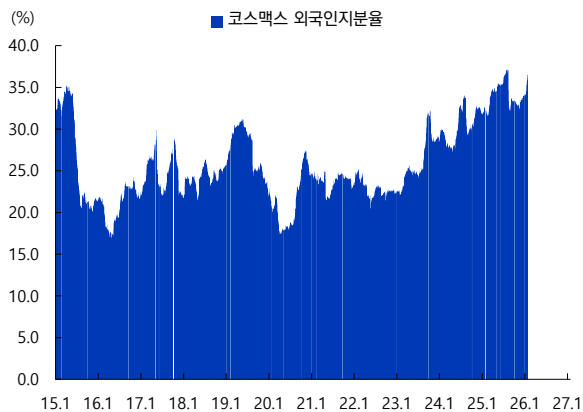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9] 펄텍코리아 외국인 지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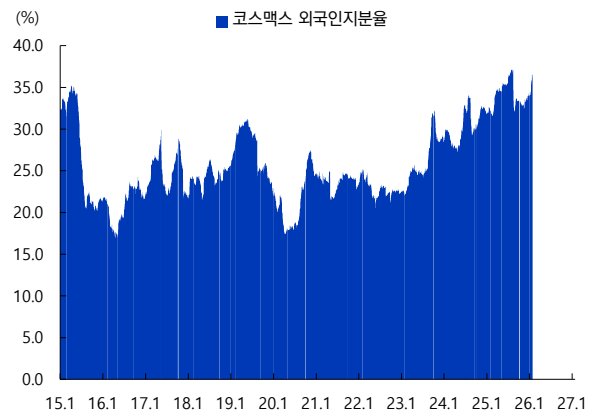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0] 코스맥스 외국인 지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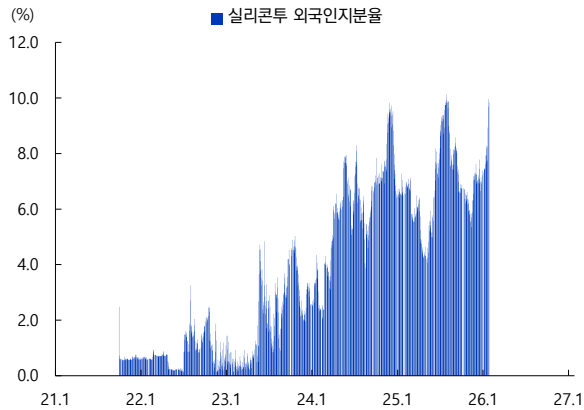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1] 한국콜마 외국인 지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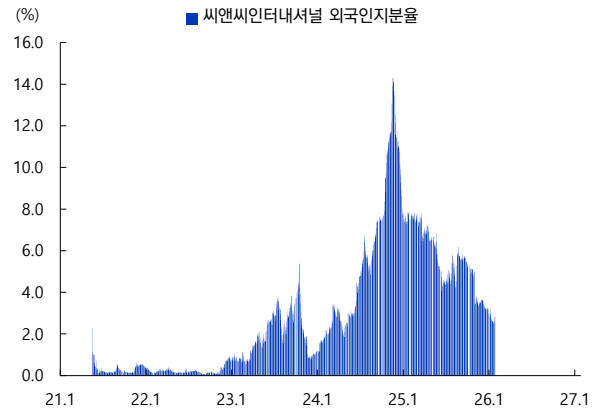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2] 실리콘투 외국인 지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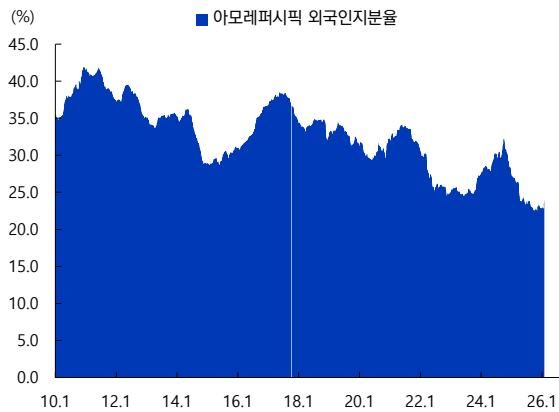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3] 씨앤씨인터내셔널 외국인 지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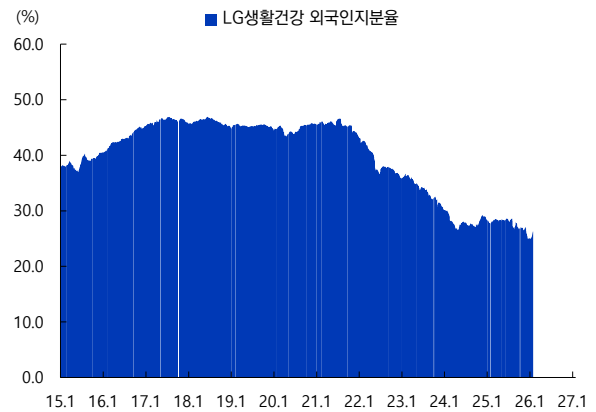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4] 아모레퍼시픽 외국인 지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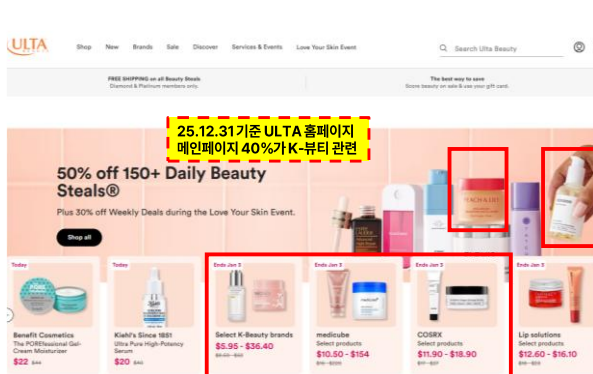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5] LG생활건강 외국인 지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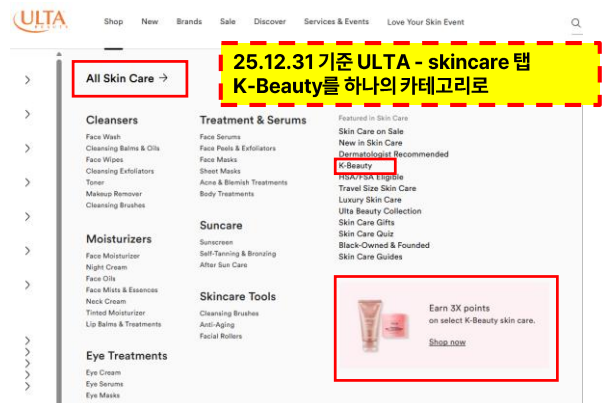
자료: 에프앤가이드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6] ULTA 메인 홈페이지 40%가 K-뷰티 관련



자료: ULTA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7] ULTA 스킨케어 내 K-뷰티 하나의 카테고리



자료: ULTA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8] ULTA 내 K 뷰티 매대 현황 -1



자료: Youtube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19] ULTA 내 K 뷰티 매대 현황 -2



자료: Youtube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[도표 20] ULTA 내 K 뷰티 매대 현황 -3



자료: Youtube, 교보증권 리서치센터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.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전일기준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투자 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■ 기준일자: 2025.12.31

구분	Buy(매수)	Trading Buy(매수)	Hold(보유)	Sell(매도)
비율	96.4	2.9	0.7	0.0

[업종 투자 의견]

Overweight(비중확대): 업종 펀더멘탈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
Underweight(비중축소): 업종 펀더멘탈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

Neutral(중립): 업종 펀더멘탈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

[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] 향후 6개월 기준, 2015.6.1(Strong Buy 등급 삭제)

Buy(매수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% 이상

Hold(보유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~10%

Trading Buy: KOSPI 대비 10% 이상 초과수익 예상되거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

Sell(매도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% 이하